

2023년 3월 12일

금문교회 사순절 제3주일에배 GGPC the 3<sup>rd</sup> Lent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13 See, my servant will act wisely;

he will be raised and lifted up and highly exalted.

14 Just as there were many who were appalled at him—

his appearance was so disfigured beyond that of any human being

and his form marred beyond human likeness—

15 so he will sprinkle many nations,

and kings will shut their mouths because of him.

For what they were not told, they will see,

and what they have not heard, they will understand.

이사야 Isaiah 52:13-15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죄악에 물든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전에 나아와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순절 제3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저희를 구원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땅히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로써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와 루디아 Luke and Lydia

사도행전 Acts 16:6-15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And they went through the region of Phrygia and Galatia, having been forbidden by the Holy Spirit to speak the word in Asia.

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And when they had come up to Mysia, they attempted to go into Bithynia, but the Spirit of Jesus did not allow them.

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So, passing by Mysia, they went down to Troas.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And a vision appeared to Paul in the night: a man of Macedonia was standing there, urging him and saying,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리라.

And when Paul had seen the vision, immediately we sought to go on into Macedonia, concluding that God had called us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11.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트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So, setting sail from Troas, we made a direct voyage to Samothrace, and the following day to Neapolis,

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And from there to Philippi, which is a leading city of the district of Macedonia and a Roman colony. We remained in this city some days.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And on the Sabbath day we went outside the gate to the riverside, where we supposed there was a place of prayer, and we sat down and spoke to the women who had come together.

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One who heard us was a woman named Lydia, from the city of Thyatira, a seller of purple goods, who was a worshiper of God. The Lord opened her heart to pay attention to what was said by Paul.

15.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And after she was baptized, and her household as well, she urged us, saying, “If you have judged me to be faithful to the Lord, come to my house and stay.” And she prevailed upon us.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팀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공격이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잘못된 신학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이상 증거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대신 유럽으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갈 길을 몰라 당황해 하던 드로아(Troas)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즈음에 한 사람의 새로운 선교팀 멤버가 합류합니다. 그는 누가(Luke)였습니다. 유럽을 건너가는 새 길에 새로운 사역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2차 선교여행팀은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증거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새로운 사역자 누가(Luke)가 합류했습니다. 고난 중에 도울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이어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계시를 따라 마게도냐(Macedonia)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을 향한 복음 전도자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 일행은 자주장사 루디아(Lydia)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열어 선교팀을 초대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유럽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광야 이스라엘의 40년과 같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이끄십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길도 그렇지만 복음전도의 길은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와 동행하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믿고 따르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2차 선교여행은 바울-바나바 팀이 계속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방문지도 제1차 선교여행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세상길을 보니 인간이 발걸음을 계획하지만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I know, O Lord, that the way of man is not in himself, that it is not in man who walks to direct his steps.

예레미야 Jeremiah 10:23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온전한 성도의 길을 갑시다.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 좁은 문을 통과하여 그분 앞에 서는 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And they went through the region of Phrygia and Galatia, having been forbidden by the Holy Spirit to speak the word in Asia.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령님께서 말씀사역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말하자면 “목적지가 좋으면 가는 길도 좋다” 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계획이라면 내려놓게 하십니다.

바울과 그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말씀증거 하는 것은 제2차 선교여행을 기획할 때 세웠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께서로부터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2차 선교여행 자체는 허락하신 바 였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역 내용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목적지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는 길도 인도하신다.”

그들은 북쪽 브루기아(Phrygia)와 동쪽 갈라디아(Galatia) 땅으로 다녔습니다. 이리저리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모른 채.

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And when they had come up to Mysia, they attempted to go into Bithynia, but the Spirit of Jesus did not allow them.

그러다가 무시아(Mysia)에 이르렀습니다. 무시아는 소아시아의 서북쪽 끝입니다.

거기 무시아(Mysia)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비두니아(Bithynia)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예수님의 영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So, passing by Mysia, they went down to Troas.

이제 그들은 서남쪽으로 돌려 드로아(Troas)에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드로아에서 그들은 모두 지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And a vision appeared to Paul in the night: a man of Macedonia was standing there, urging him and saying,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이쯤 하면 바울과 그 일행은 어떤 목적지가 분명하여 달리기를 힘쓰는 선교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길이었습니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사실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vision)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And when Paul had seen the vision, immediately we sought to go on into Macedonia, concluding that God had called us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마자 곧바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마게도냐(Macedonia)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볼 때 거기는 유럽의 관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1.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So, setting sail from Troas, we made a direct voyage to Samothrace, and the following day to Neapolis,

“우리가(we)!” 여기 사도행전 16:11에 특별한 “인칭대명사”가 등장합니다. “우리(we).” 그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기자가 포함된 “1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바로 여기서 “누가”(Luke)가 선교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마치 욥기에서 갑자기 뛰어난 엘리후(Elihu)처럼 누가의 등장은 모두에게 의외였습니다. 게다가 앞뒤에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가 “드로아”(Troas)에서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바울 일행은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다가 드로아에서 기진맥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바로 그 어간에 누가가 합류한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당황스럽고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물론 누가가 길을 인도하는 자는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Acts)을 기록하고, 후에 누가복음(Gospel according to Luke)을 기록한 누가(Luke)는 바울에게 마지막 순교의 때까지 동행한 믿음의 동지였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복음도 “이방인”들과 “여인들”에 주목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여인 루디아가 좋은 예입니다.

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And from there to Philippi, which is a leading city of the district of Macedonia and a Roman colony. We remained in this city some days.

마침내 바울 일행은 지중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도성 빌립보(Philippi)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의 동북 끄트머리, 아시아에 머리를 맞댄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거기서 바울 일행은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 며칠 동안 어떤 사역의 내용이 기록된 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오기는 온 것인가?” 의문을 두고 고민하던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And on the Sabbath day we went outside the gate to the riverside, where we supposed there was a place of prayer, and we sat down and spoke to the women who had come together.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 을 찾아 나섰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회당” 을 찾았는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거처의 문 밖에 있는 강가에 나갔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통은 남자들에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사뭇 달랐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 곁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One who heard us was a woman named Lydia, from the city of Thyatira, a seller of purple goods, who was a worshiper of God. The Lord opened her heart to pay attention to what was said by Paul.

자색 옷감(purple goods) 장사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Lydia)입니다. 그 여자가 바울 일행이 복음전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자주 장사(purple goods trading)는 부유한 사람의 직업이었습니다. 진홍벌레(scarlet worm)라는 구하기 어려운 벌레를 염료로 사용하여 자줏빛을 내는 것인데,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15.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And after she was baptized, and her household as well, she urged us, saying, “If you have judged me to be faithful to the Lord, come to my house and stay.” And she prevailed upon us.

루디아(Lydia)와 그의 집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가 말했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안다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숙식을 그 집에서 해결했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개가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교회도 마가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다섯 개 교회도 모두 어떤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열어 마게도냐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집을 열어 교회로. 이것은 단지 자기 주거의 어떤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핍박(persecutions)의 까닭이었던 시절입니다. 집이 교회라면 그 집은 핍박의 구체적인 목표점이 되는 것입니다.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위협에 처합니다. 이것은 자기와 식구들의 생명을 포함하여 “모두 다 주님께 드림” 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시절에 도망자들을 자기 집에 숨겨 먹이고 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발각될 경우 집안 모든 사람들이 “범인 은닉죄” 로 조사를 받고, 심한 경우 고문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인들의 활약이 컸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역자들 대부분이 남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한 자들 중에 여자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기 집을 열어 교회를 삼은 진정한 믿음과 용기 있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루디아(Lydia)가 그런 여성들 중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길 험합니다. 날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경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만남의 축복. 바울이 사역의 현장에서 만난 축복을 헤아려 봅니다.

1. 바울이 바나바(Barnabas)를 만난 것은 예루살렘에 처음 갔을 때, 사도들이 상대해 주지 않던 괴로운 시절이었습니다.
2. 바울이 요한마가(John Mark)를 만난 것은 생애 첫 선교여행 첫 발걸음 때, 구브로(Cyprus) 섬에서였습니다.
3. 바울이 실라(Silah)를 만난 것은 신학적 위기의 때 예루살렘(Jerusalem)에서였습니다.
3. 바울이 디모데(Timothy)를 만난 것은 제1차 선교여행 때 돌에 맞아 거반 죽은 기억의 자리, 루스드라(Lystra)에서였습니다.
4. 바울이 누가(Luke)를 만난 것은 선교의 길이 막혔을 때, 트로아(Troas)에서였습니다.
5. 바울이 루디아(Lydia)를 만난 것은 전혀 생소한 유럽에 첫 발을 디뎠을 때였습니다. 빌립보(Philippi). 여자들이 모여 있던 곳에서였습니다. 거처도 예배처도 기도처도 없던 유럽 마게도냐 빌립보(Philippi)에서 루디아는 하나님의 종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여선교회 이름으로 루디아를 사용합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God prepares his people.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God chooses. 우리는 누구를

보내주시든지 그와 함께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We are to work to whom God sends us. 하나님의 일, 그것은 사람에게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열 두 제자(the Twelve Disciples)의 면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합이(the gathering)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Sea of Galilee)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세관(taxation office)에서 부르셨습니다. 열심당원(zealots) 중에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work of God)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까? 대답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입니다.

그런데도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주님,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Parable of Laborers in the Vineyard)를 생각합니다(마태복음 Matthew 20:1-16).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one denarius a day) 약속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서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9 o' clock in the morning) 불렀습니다. 제6시에(noon) 불렀습니다. 제11시에도(five o' clock afternoon) 불렀습니다. 맨 나중 사람은 겨우 한 시간을 일했습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각각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내가 저 한 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아?” These last worked only one hour, and you have made them equal to us who have borne the burden of the day and the scorching heat.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약속한 것을 주었다.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 하루 샅을 준 것은 내가 선하기 때문이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Do you begrudge my generosity?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서는 선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협력하여 그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누가(Luke)와 루디아(Lydia). 마게도냐 환상을 두고 말하면 이들 두 사람은 각각 그 직전과 그 직후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동역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입니다. What we need is obedience to the call. 그뿐입니다. That's all.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As we all give thanks in all. 아멘.

####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사역의 길에 나선 바울과 그 선교팀의 모습이 마치 광야에 나선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 인생의 광야길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돌보사, 갈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지체하지 말고 그 명령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일 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심을 믿습니다. 루디아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드러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